

한우부문 '왕중왕' 신만식 농가를 찾다.

2008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대상(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수상

부산경남지역본부 과장 김학성

1976년 28세의 나이에 낙농으로 축산을 시작한 신만식 사장은 우유파동 후 1995년 지금의 농장(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서 한우사육을 시작하여, 현재 5개동(2,610.8㎡)에서 거세우 200두를 사육하고 있다. 시작할 당시 신축한 축사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수준으로 요즘 최신 시설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수를 해서 환기시설이나 TMR 배합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양관리

1994년부터 축산물등급판정제가 김해시에 적용되면서 고급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우고기의 품질급회는 거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최고 품질의 쇠고기 생산을 위한 강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으로 사양실험에 진력한 결실로써 현재 최고급 한우를 길러낼 수 있는 사양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송아지 구입 및 입식관리

혈통이 좋고 성적이 좋은 송아지를 구입하는 것이 고급육 생산의 80%라는 생각에 우시장이나 브랜드 경영체를 통해 입식하고 있으며, 4~5개월령의 어린 송아지는 환경 및 사료 변화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입식 전에 우사청소와 소독을 깨끗이 하여 건조시키고 깔짚을 갈아 안정감을 주면서 계절에 맞는 충분한 급수, 양질의 조사료 급여 및 사료 적응 등 특별 관리를 한다.



▶ 거세실시

거세는 5개월령 전·후에 축협의 교육지원부서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며 거세 시 병원균 감염에 주의하며 소독과 스트레스 해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육성우 사양관리

육성우 단계부터 출하시까지 자가배합사료(쌀보리, 쌀겨, 콩비지, 배합사료 가루 등)를 무제한 급여하며 볏짚과 물, 향토 흙과 소금은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육전기 사양관리

비육전기(생후 14~21개월령)는 근내지방 축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료섭취량을 최대로 하는 특징을 갖는 시기로 자가배합사료의 원료를 조절하여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바이패스 단백질 함량 증대, 고소화성 섬유소 원료 강화, 비타민 함량을 맞추고, 특히 육색 및 육질 개선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거세 비육우의 경우 TMR사료는 자유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별 최고 섭취량은 기준 급여량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다.

▶ 비육후기 사양관리

비육후기(생후 22~23개월령)는 출하를 위한 마무리 시기이자 근내지방 축적이 완성되는 단계로 고소화성 섬유소 원료 강화, 최고의 에너지 수준과 광물질 함량을 조절하여 자가배합사료를 무제한 급여(기준량 14~19kg)하며 과도한 등지방 형성 방지, 조직감과 보수력 향상 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방향

한우산업도 일관사육을 실시하는 장점과 비육우 사육의 장점을 파악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며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12월 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사육단계 시행으로 한우사육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번식우 전문농가와 거세우 비육전문 농가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힘든 축산현실을 극복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